

“인간성의 종교”와 촛불 집회

- 에밀 뒤르케임의 이론을 중심으로 -

이 철 (송실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인간성의 종교: 그 개념과 의미

1.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2. 인간성의 종교의 종교적 차원
3. 인간성의 종교의 미래

III. 촛불집회 분석

1. 촛불집회의 '종교성'
2. 촛불집회와 인간성

IV. 인간성의 종교에 대한 평가 및 기독교적 함의

V. 나가는 말

• ABSTRACT •

A Retrospect on the 2008's candlelight rally: A Sociological Analysis of Emile Durkheim's Cult of Humanity

Lee, Chull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amine a Durkheim's concept of cult of humanity in the movement of 2008's candlelight rally. The cult of humanity, a neglected Durkheimian concept, is a cult that considers humanity as a pivotal object of worship. According to Durkheim, this cult should not be regarded neither as an individualism nor as an egoism. It is rather an expression of faith for human values such as life, dignity, human rights, equality and so forth. He believed this cult would flourish in the future: the more the society becomes an age of division of labor, the more the cult would prosper.

The judgement of Durkheim on this subject may prove to be right when we look over the 'civil movements' that take place these days all over the world. Among them was the 2008's candlelight rally. This civil was not an expression of egoism or individualism in its common sense. The incident was something to do with claiming human values such as human right, life, health, family and future that they believed were threatened by the decision of importing the unhealthy meat. People in the rally, while protesting against their government's decision, tried to protect the 'sacred' rights and congregations, worshipped these values and rights, formed a 'moral community' and established a cult of humanity.

The implication of the cult to Christianity is one of the concerns of this study. This cult believes humanity as the most prominent element that can serve well the modern or post-modern people's value system. Christianity also valued it, but not more than divinity. The primary object of worship in Christian church is not the human but the God. The cult of humanity can be thus a crisis or challenge to Christianity and its believers.

Key words: candlelight rally, cult of humanity, Emile Durkheim, civil movement, humanism, individualism, egoism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는 촛불 집회를 주위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빈번히 촛불 집회가 결성되어 시위를 벌인다. 과거 폭력적인 시위 방식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촛불집회는 일면 평화로운 방식의 시위 형태로 간주될 수 있고, 그래서 서인지 촛불집회는 큰 반대나 거부감 없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촛불집회는 현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도 널리 취해지는 집회 방식이다. 미국의 911 테러 촛불집회, 노르웨이 오슬로 촛불집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번의 촛불집회가 있었지만 그 중 규모나 영향력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주목할 촛불집회는 바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이었다.

촛불집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이 촛불집회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시위이기에 비폭력을 옹호하는 기독교는 이 시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하는지? 촛불집회에는 기독교의 본질과 동질성 혹은 이질성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글은 한국 사회에게 가장 대표적인 촛불 집회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이하 촛불집회)를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의 이론, 특히 그가 언급한 ‘인간성의 종교’(cult of humanity) 개념을 근거로 분석하고자 한다.

글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뒤르케임의 논문을 통해 인간성의 종교에 대해 고찰한다. 이 종교에 대한 그의 지론은 1894년 발생한 드레퓌스 사건(L'affaire Dreyfus)을 계기로 그가 1898년에 쓴 글 “L'individualisme et les intellectuels”에서 발견된다.¹⁾ 다음으로

인간성의 종교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2008년 촛불집회를 분석한다. 뒤르케임이 예견하였던 인간성의 종교의 발흥을 이 집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성의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보면서 이 종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러한 평가는 특히 기독교와 인간성의 종교 간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원의 차이점을 드러낼 것이며, 현대 사회가 갈수록 인간 중심주의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뒤르케임의 인간성의 종교 개념은 흥미로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다.²⁾ 이 글은 그간 간과되거나 소홀히 여겨진 그의 인간성의 종교에 대한 이론을 재발견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이 종교의 현상을 구체적인 사건을 토대로 살펴보는 것이다.

II. 인간성의 종교: 그 개념과 의미

이 인간성의 종교는 때로 인간의 종교(cult of man), 인성의 종교(cult of personality), 개인의 종교(cult of individual)로 불려진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또한 뒤르케임의 원문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인간성의 종교(cult of humanity)로 호칭될 때이다. 이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성을 숭배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다.³⁾ 이제 이 종교에 대한 뒤르케임

1) 이 논문은 이후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가 엮은 *Emile Durkheim on Morality and Society* 안에 "Individualism and the Intellectuals"라는 제목의 글로 영역되었고, 이것은 다시 박영신에 의해 "개인주의와 지성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그가 엮은 책 Robert Bellah, 『사회변동의 상징구조』(서울: 삼영사, 1981)에 실려졌다.

2) 국내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로는 앞의 주에서 언급하였듯이 박영신이 뒤르케임의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하였고, 다음으로 오경환이 자신의 책 『종교사회학: 개정판』(서울: 서광사, 1990)에서 뒤르케임에 대해 소개하면서 잠시 논의한 것이 전부이다.

3) Kevin Dew, *Public Health and the Cult of Humanity: A Neglected Durkheimian*

의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뒤르케임이 그의 논문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단지 드레퓌스 사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사건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야기된 사회 갈등에 주목하였고, 특히 드레퓌스를 옹호하는 지성인들에 대한 반대 세력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 그는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였고, 이것이 비판자들이 지적하듯이 (일반적 의미의)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아님을 피력하였다. 그는 개인의 존엄성이 더욱 존중받을 미래 사회를 염원하였고, 이 사상이 지고한 가치의 중심이 되는 인간성의 종교를 예견하였다.

뒤르케임은 먼저 반대자들이 비판하는 개인주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개인주의 개념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그는 스펜서(Herbert Spencer)의 공리주의 혹은 공리적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 이것을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결부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⁴⁾ 뒤르케임에 따르면 전자는 개인 간의 관계를 단순히 생산과 교환의 관계로 보며, 사회는 이러한 관계의 거대한 장치일 뿐이다. 이 관계 안에서 개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이며,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 보다 더 높은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회는 “무정부적”이라 할 수 있다.⁵⁾ 도덕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뒤르케임에게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존

Concept,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Vol. 29, no. 1, 2007, 100-101.

4) 뒤르케임은 비판자들이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공리적 이기주의와 결부시킴으로써 자신 및 자신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지성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Bellah, 앞의 글, 140)

5) 위의 글, 146.

재해서도 안된다.

뒤르케임이 주장하는 개인주의는 칸트(Immanuel Kant)와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개인주의 혹은 이상주의자들의 개인주의이다. 이 개인주의는 일반적인 개인주의와 달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배제된 개인주의이다. 칸트는 내 행동의 동기가 내가 지지하거나 내가 위치한 입장, 조건, 계급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면 그 행위는 정당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뒤르케임이 이해한 칸트에 따르면 “나의 행위를 결정하는 동기가 내가 자리 잡고 있는 특수한 형편 때문이 아니라 추상화된 나의 인간성 humanity 때문일 때만이 내 행위의 적절성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 결국 행위의 부적절성 혹은 부도덕성은 그것이 행위자의 개체성(사사로운 이익이나 동기의 근원)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지로부터 가름된다.

뒤르케임은 루소도 동일하게 주장하였다고 본다. 사회에는 여러 상충된 개인적 의지들이 있다. 이 의지들이 사회 안에서 반목과 갈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개인적인 동기나 고려들이 중화되거나 상쇄되면서 후에는 일종의 “비개인적인 중간 의지가 곧 일반 의지”가 남게 된다. 이것은 온전한 정의의 한 표현인데, 이유는 그것이 “모든 개인들의 의지를 모두 합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뒤르케임에 따르면 개인의 개체성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그에 따른 행위는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뒤르케임은 공리주의적 개인주의를 개체성에 한정된 이기주의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이 주창하는 개인주의와 간극을 벌린다. 그는 전자가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자기 숭배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후, 자신이 추구하는 인간성의 종교는 모든 개별성을

6) 위의 글, 147.

뛰어넘는 보편적 인간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물론 여기서 이 인간성의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뒤르케임에게 이것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었다.

뒤르케임의 이러한 구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과연 사사로운 이기심에 근거하지 않는 개인 행위를 실제 사회생활에서 상정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가능성을 지닌 개체성이 존재하는가? 상충하는 의지들이 갈등을 겪으면 개인적 이익들이 상쇄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익 진공 영역이 마련될까? 인간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수합해 볼 때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기주의와 유용성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합리적 존재이다.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존재에게 뒤르케임은 사실 이상의 기대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에 대한 뒤르케임의 대답은 명백한 것 같다. 이기주의와 효용성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사고하려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해 맹렬한 반격을 가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숭고한’ 개인주의를 상정하고 믿는 뒤르케임을 본다. 인간이 수단이 되지 않고 오로지 목적이 되는 그러한 개인주의를 뒤르케임은 그리고 있고, 이 개인주의에 근거해 인간성의 종교를 주창하고 있다.⁸⁾ 더욱이 이 종교는 인간성의 숭고함을 지고의 가치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기적 개인주의를 제약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할 것이라고 그는 본다.⁹⁾

7)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이론은 ‘낙관적 합리주의’에 근거한 관점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Daniel Cherniel, A Quest for Universalism: Re-assessing the Nature of Classical Social Theory’s Cosmopolitan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0, 2007, 27.)

8) Massimo Rosati, Inhabiting No-Man’ Land: Durkheim and Modernity,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Vol. 8 no. 2, 2008, 244.

9) 뒤르케임은 도덕과 관련된 네 가지 서로 다른 개념들을 다룬다. 곧 이타주의, 이기주의, 숙명주의 그리고 아노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중 이기주의와 아노미가 매우 강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자살과 같은 병리적 현상들

그러나 뒤르케임 역시 모든 사람들이 ‘숭고한’ 개인주의 혹은 이상주의적인 개인성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그는 프랑스 제3공화국 시대의 혼란을 겪으면서 인간과 사회의 병리 현상을 충분히 직시한 사회학자이다. 지금까지 언급해온 그의 논문에서도 “본래 우리들의 이성엔 모든 사사로운 동기를 제거해 버리고 이론적으로 보아 자기 자신의 행동을 법률로 다스릴 수 있는 슬기롭고 순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에게 이기심이나 유용성을 뛰어넘는 존엄한 인간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칸트의 도덕론과 루소의 일반의지론을 따른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이상주의자의 일원이다. 그의 글 속에서도 그는 이 개인주의를 “이상주의자들의 개인주의”라고 적었다.¹¹⁾ 이 글은 뒤르케임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2. 인간성의 종교의 종교적 차원

1) 본질적 측면

뒤르케임의 논문은 인간성의 종교가 두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질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이다. 이러한 차원은 이미 그의 종교 정의에서 나타났다.¹²⁾ 그리고 이 두 차원이 협업하여 사회를 통합 유지시킨다는

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성의 종교는 뒤르케임이 볼 때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규제 장치들 중 하나이다.(Dew, 앞의 글, 101.)

10) Bellah, 앞의 글, 151.

11) 위의 글, 147.

12) “종교란 성스러운 사물들, 즉 구분되고 금지된 사물들과 관련된 믿음들과 의례들이 결합된 체계이다. 이러한 믿음들과 의례들은 교회라고 불리는 단일한 도덕적 공동체 안으로, 그것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합시킨다.”(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노치준, 민혜숙 옮김,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서울: 민영사, 1992), 81.

것이 그의 종교론의 핵심이다. 먼저 본질적 차원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존경할만한 값어치가 있고 거룩한 것은 인간성이다”¹³⁾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인간적 인격.....은 그 말의 관례적 뜻에 있어서 거룩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것은 어느 시대의 종교 단체이든 그들이 섬기는 숭배의 대상에서 주는 초월적 위엄을 같이 나누어 갖고 있다. 그것은 거룩한 것들 주변에 공간을 만들고 있는 신비스러운 속성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그 속성은 세속적인 접촉에서 동떨어져 있고 통상적인 교류로부터 물러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주어지는 존중은 바로 이러한 출처에서 나오는 것이다.¹⁴⁾

여기서 우리는 뒤르케임이 일반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있어 성스러움은 종교의 중요한 원천인데, 이 성스러움의 근원이 본질적,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성스러움이나 거룩함에는 어떤 보편성이나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그의 호주 아룬타 부족 연구에서 드러났듯이-개구리와 오리도 성스러운 존재로 그 부족원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대상도 그것의 본질적인 속성과 상관없이 성스러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성스러운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논리에서 뒤르케임이 인간성을 성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인간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인식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말한 인간성을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거룩하였다면

13) Bellah, 앞의 글, 151.

14) 위의 글, 148.

우리 모두는 여하간 그것의 거룩함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성이 중요하고 고귀하지만 그렇다고 거룩하다고 혹은 성스럽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종교의 대상으로까지 끌어올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뒤르케임은 자신의 논리를 따라 그것에 성스러움을 부여하여 인간성의 종교적 차원을 확립한다. 이런 종교에 대해 그는 “그것은 사람이 예배자이자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종교”라고 말하면서 “공통적인 믿음의 대상이 개인의 본성에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는 전연 없다”고 단언한다.¹⁵⁾

뒤르케임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것이 종교이기에 이것에 대한 모독은 곧 일반 종교에 대한 모독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지적한다. 곧, 성스럽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모독한 자들에 대한 추종자들의 강력한 반감이다. 뒤르케임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자유를 사람의 명예를 빼앗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이든 마치 믿는 이가 자기가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 모독을 당할 때 경험하는 것과 같이 소름끼치는 혐오감을 품게 한다”고 하였다.¹⁶⁾ 이는 다시 한 번 이 종교가 종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장인 동시에, 뒤르케임이 인간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모욕을 가하는 자들을 향해 품고 있는 ‘호교론적’ 태도와 감정, 그것도 매우 근본주의자들의 그것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인간성을 이렇게까지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뒤르케임의 인식에 대해 우리는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뒤르케임은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인간성이 개인 자신을 이기적으로 숭배하거나 본능을 즐겁게 하는 것과는 아주 달리 오히려 본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높은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라

15) 위의 글, 152.

16) 위의 글, 148-149.

고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이 인간성을 특정한 한 개별 인간-예를 들어, 인격적으로 훌륭한 개인-에서 찾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반적인 개인들과 이 개인들이 서로 맺는 상호관계에서 그것을 찾는다. 그는 이 인간성을 지극히 보편적이라고 주장하길 원하는데, 이것은 특정 개인의 인간성을 승화시키거나 성화시키는 시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거부나 비판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익명적이고 불 특정적이다.¹⁷⁾

인간성의 종교는 이렇게 선별이나 특권의식에서가 아니라 보편성으로부터 출현한 것이기에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 종교가 민주주의를 위한 종교가 될 좋은 토양을 제공한다. 실제로 2008년도 촛불집회에서 이 종교는 민주주의와 잘 조화되었다.

2) 기능적 측면

이 종교의 기능적 측면은 뒤르케임이 여타의 종교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에 따르면 모든 종교는 믿음과 의례의 체계를 가진다. 이 종교 역시 믿음과 의례의 체계를 가지는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고, 의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합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본 논문의 주제와 연결시키면-촛불집회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뒤르케임의 관점에서 보면 아룬타부족의 토tem종교와 촛불집회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거기에는 성스러운 대상(촛불집회의 경우, 생명, 인권, 주권, 행복 등등)과 이 대상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집합 표현, 집합 흥분, 집합 의식(촛불 집회)과 이를 통해 결성되는 ‘도덕’ 공동체(촛불집회가 형성한 공동체)가 있다. 이 인간성의 종교는 의례를 통해 자신의 숭배자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결속,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

17) Dew, 앞의 글, 105.

하며, 동시에 그 성스러운 대상들을 숭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각인 시킨다. 종교의 사회통합 유지기능이다.

드레퓌스 사건 때도 이와 유사하였기에 뒤르케임은 이 사건으로부터 인간성의 종교를 추출해 낸다. 거기에는 드레퓌스 사건으로 상징되는 인권, 존엄성과 같은 성스러운 대상들이 있었고, 이 성스러운 대상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려는 뒤르케임을 위시한 지성인들의 집합적인 행동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려는 외부적 힘에 대항하는 도덕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종자들이 결집된다. 뒤르케임의 종교 이해는 이러한 집합행동에 근거하고 있고, 종교의 역할이 발견되는 곳도 바로 이곳에서이다. 그는 인간성의 종교에 대한 논의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본질적으로, 종교는 어떤 권위가 주어진 집합적인 믿음과 관행의 덩어리일 뿐이다. 어떤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의해 추구되면 곧, 이러한 의견 일치의 집합 때문에 그 목적을 사사로운 목표 위로 크게 올려놓음으로써 이에 종교적인 성격을 주는 일종의 도덕적 우월성을 얻게 된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지적 및 도덕적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응집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¹⁸⁾

결국 인간성의 종교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인간성을 중심으로 개인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도덕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그 사회를 응집,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 유지 역할은 이전 사회에서는 주로 전통 종교들이 수행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성의 종교가 수행 가능하다고 그는 보고 있다.¹⁹⁾ 다만 전통 종교와는 달리 현대

18) Bellah, 앞의 글, 154.

19) Dew, 앞의 글, 102; Robert A. Segal, The Place of Religion in Modernity, *History*

의 인간성의 종교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집합의식의 핵심에 자리 잡는 것”이 다를 뿐이다.²⁰⁾ 이렇게 수행되는 집합 행위(집합 감정, 집합 표현, 집합 의식)는 인간성의 가치를 더욱 고양시켜 그것의 중요성과 숭고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 종교를 숭배하게 만든다.

3. 인간성의 종교의 미래

뒤르케임은 자신의 논문에서 인간성의 종교의 본질이나 역할 외에도 몇 가지 더 논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종교의 미래에 대한 것이다. 그는 시대에 따라 종교가 변화하겠지만 “종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 서있다.²¹⁾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인간성의 종교가 미래 사회에서도 존속할 뿐만 아니라 더욱 발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 이유를 뒤르케임은 분업의 증가 현상에서 찾는다. 분업에 대한 그의 사전 연구에서 이미 주장되었듯이 미래 사회는 갈수록 분화가 심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통합의 필요성도 증대된다. 사람들은 분화로 인해 매우 다양한 생각에 이끌리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라는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공통적 토대가 있을 때 획득 가능하다. 뒤르케임은 인간성이 바로 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인간성이 “변화하는 흐름 위에서 지켜지고 불변하는 사사롭지 않은 유일한 이념”이기에 또한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기 때문이다.²²⁾

of Human Sciences, Vol. 17 no. 4, 2004, 134.

20) Barbara A. Misztal, Durkheim on Collective Memory,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Vol. 3. no. 2, 2003, 132.

21) Bellah, 앞의 글, 154.

22) 위의 글, 155.

뒤르케임은 이 ‘유일한’ 이념과 감정을 보편적 토대로 사용할 때 통합은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통합의 요구가 강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성의 종교는 더욱 요청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성에 대한 요청이 분화 과정에 필수적인 것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인간성의 종교의 확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뒤르케임은 이 필연성을 아래와 같이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개인주의인간성의 종교의 상승을 멈추게 하려면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더 벌어지는 분화의 과정을 막아야 하며, 사람들의 인격을 평준화시켜야 하며, 과거와 같은 낡은 획일주의로 돌아가야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가 항상 더욱 확대되고 더욱 집중되고 있는 경향성을 억제하여야 하며, 그리고 끊임없는 분업의 발전 과정을 방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³⁾

이런 일이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인격적 인간성은 절대 요청될 것이라는 것이 이 종교에 대한 뒤르케임의 관점이다. 뒤르케임은 분명 이 종교의 열렬한 신봉자이자 전도자이다.

이러한 뒤르케임의 주장은 일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하게 분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과연 지금도 남아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이 있을까? 다원주의 사회에서 제도 종교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편적 토대를 제공하지 못한다. 현대 과학도 이전과 달리 객관성을 지닌 보편적 지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기적 개인주의이다. 이 개인주의는 ‘변화하는 흐름 위에서 지켜지고 불변하는 [또 다른] 유일한 이념’이며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또 다른] 유일한 감정’이다. 그러나 이 개인주의는 뒤르케임이 언급하였듯이 그 이기심과 개체성으로 인해

23) 위의 글, 155-156.

조화롭고 원활한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이기적 통합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단 이기주의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보편성, 통합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공통분모는 생명, 평등, 자유, 행복과 같은 인간적 가치들일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통합적 사회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두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적 가치들에 근거한 사회 운동(예를 들어, 서울 시청이나 오슬로에서 발생한 촛불 집회)과 이기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사회 운동(남비현상, 귀족노동운동, 국수주의)이다. 인간성의 종교의 미래 가능성은 전자에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 운동 혹은 시민운동들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화 시대를 위한 인간성의 종교”라고 간주할 수 있다.²⁴⁾

뒤르케임은 기독교가 인간성의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가 이를 언급한 이유는 뒤르케임의 비판자들이 인간성의 종교를 기독교와 대체되는 위치에 놓고 전자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뒤르케임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인간성의 종교를 지키길 원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는 인간성의 종교와 기독교를 “적대 세력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앞의 것은 뒤의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²⁵⁾ 개인주의 정신은 개개인 내면의 믿음과 신념을 중시해온 개신교 전통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인간적 가치들(생명의 존귀함, 자유, 평등 등)은 성서에 바탕을 둔 기독교 신앙과 연맥 되어 있다. 따라서 두 종교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조화되고 상호교류

24) Elliot, 앞의 글, 353.

25) Bellah, 앞의 글, 157.

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두 종교 간의 관계를 이 같이 설정하여 조화시킨 뒤르케임의 논지에 대해 우리는 기독교와 인간성의 종교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관계와 부정적인 관계의 가능성 공존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기독교와 개인주의가 조화롭게 상호 보조를 맞추면서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사상이나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이는 물질, 제도, 기술, 환경 등이 인간성을 위협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면은 기독교가 인간성의 종교화 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개인주의적 특성과 인간적 가치의 강조로 인해 여타의 종교보다도 인간성의 종교화 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은 역전이라는 혼돈이 초래될 수 있다. 신 중심 신앙이 인간 중심 신앙으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실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III. 촛불집회 분석

1. 촛불집회의 '종교성'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시청 및 광화문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6월 10일 경을 기하여 도합 100만 명 정도의 참여자가 모인 집회로 발전하였다. 이 같이 거대 집회가 된 배경에는 이 책 2장에서 밝혔듯이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가 강력하게 이 과정에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관심하려는 것은 그러한 요소들과 과정이 아니라 이 촛불집회의 '종교적' 성격, 곧 촛불집회에 스며들어 있는 뒤르케임의 인간성의 종교에 관한

것이다.

촛불집회는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질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종교적이었다. 뒤르케임은 종교를 형성에 있어 성스러운 대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종교는 성스러운 대상과 관련된 제의, 신념, 공동체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다. 이 때 그 대상은 본질적으로 혹은 내재적으로 성스러운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스러움은 외부에서 그 대상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도 성스러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성스러운 것이 타인이나 여타 집단에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거나, 한 개인이나 집단 안에서 한 때는 성스러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 성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²⁶⁾

2008년 촛불집회에는 성스러운 대상이 있었다. 에드워드 쉘즈(Edward Shils)의 용어를 사용하면, 성스러운 중심이 있었다.²⁷⁾ 뒤르케임이나 쉘즈에게 있어 성스러운 중심 혹은 대상은 반드시 지리적 장소나 물리적 대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개념들도 성스러운 대상이나 중심이 될 수 있다. 촛불집회에서 이 대상들은 생명, 인권, 주권, 건강, 행복 등이었다. 이러한 대상들은 집합흥분, 집합표현, 집합의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집합의례(collective ritual)를 통해 성스러운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의례를 반복할수록 그 성스러움은 더욱 강렬해졌다.

뒤르케임의 집합 의례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의례를 통하여 성스러움을 입은 대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을 결집시켜 하나의 도덕공동체를 형성한다. 성스러운 대상을 중심으로 일종의 종교공동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공동체는 종교 집단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항대립

26) 이에 대해서는 이철, 「승례문 전소사건의 사회통합적 힘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44집, 2009, 범호를 참조하라.

27) Phillip Smith,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서울: 이학사, 2008), 153.

적 사고 구조와 신념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과 악 혹은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분이다.

이러한 이항대립에서 악은 언제나 제거되거나 정화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악과 속의 존재나 활동은 언제든지 성과 선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과 선은 순수한 것이고 순수한 것은 언제든지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것이다.²⁸⁾ 따라서 구성원들은 ‘순수’가 속에 의해 위협받는다 고 생각할 때 ‘순수’를 지키기 위하여 속에 대응한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이항대립은 더욱 분명하고 날카롭게 대립되고, 이 대립을 토대로 집합 행동이 발생하고, 구성원들이 회집한다. 강력한 도덕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촛불집회 역시 이러한 이항대립적 사고 구조와 신념이 강하게 작동된 사건이다. 구성원들이 성스럽거나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생명, 건강, 주권, 행복, 가정, 미래 등)이 악과 속(쇠고기 수입 협정, 이명박 정부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스러운 가치나 신념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자신들을 선 혹은 성의 자리에, 이것들을 위협하거나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을 악이나 속의 자리에 위치시켰고, 이 구분과 대립을 근거해 집단적 대항 운동이 전개하였다. 이들은 뒤르케임적 의미에서 거대한 ‘도덕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이 집단 행동을 통해 시민운동을 펼쳐나갔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촛불집회는 뒤르케임의 종교 정의의 입각해서 볼 때 전형적인 종교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집회에는 성스러운 대상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믿음들과 의례들이 있었으며, 이 믿음들과 의례들에 의해 형성된 도덕적 공동체가 있었다. 이 통합된 공동체는 자신들이 숭상

28) 이에 대해서는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유제분, 이훈상 옮김, 『순수와 위험』 (서울: 현대미학사, 2005)을 참조하라.

하는 성스러운 대상을 위협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속적인 세력에 대해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2. 촛불집회와 인간성

촛불집회에서 주창된 성스러운 대상들은 개인적인 가치들이었다. 즉, 생명, 건강, 행복, 자유, 주권 등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성(humanity)과 관련된 것들이고 따라서 뒤르케임의 인간성의 종교가 추구하는 ‘숭고한’ 인간성의 요소로 간주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관건은 과연 이러한 가치가 이기적 개인주의와는 관련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가치들이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발로한 것들이라면(이러한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데), 그리하여 촛불집회에서 규합된 구성원들의 추구가 이기적 개인주의의 집단 표출에 불과하다면, 촛불집회는 뒤르케임의 인간성의 종교와 부합될 수 없는 어떤 것이 된다. 그것은 단지 이기적 개인의 자기 숭배의 집합적 표현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자.

뒤르케임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주의가 이기적 개인주의로 오해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사교하였다. 그는 공리적 이기주의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개인주의와 혼돈되지 않기를 요청하였다. 공리적 개인주의에서 궁극적인 관심은 사사로운 이익 추구하고 그 이상의 높은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뒤르케임은 자신의 개인주의가 그러한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못 박는다. 그렇다면 촛불집회에서 추구된 가치들을 어떤 가치일까? 공리적 이기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일면 그러한 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집회 참여자들이 개인의 생명, 건강, 행복, 가정, 미래 등을 걱정하고 추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숭고한 가치에는 공적 영역 외에도 사적 영역에 속한 가치들도

있는 것이다. 생명, 행복, 건강 등은 사적 영역과 관련된 가치이다. 그러나 사적 차원의 가치라고 하여 반드시 이기주의적이고 사사로운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매우 절대적이고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켜주는 가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앨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의 생명외경 사상이 이기주의적이고 사사로운 가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듯이 집회 참여자들의 생명, 건강, 행복,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이기적 개인주의로 폄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다른 예를 언급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명과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라고 치부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안이다. 다만 개인적 차원의 가치인 것일 뿐이다. 더구나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단순히 자신들만을 위해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뒤르케임의 인간성의 종교가 “타인의 자유, 권리, 사회 경제적 정의에 대한 헌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²⁹⁾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자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도 관심하였다.

따라서 생명, 건강, 행복, 미래에 대한 주장은 개인들의 개별성에만 근거한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그 외연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보편적 인간성에 근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뒤르케임이 인간성의 종교를 주창하는 토대도 바로 이 보편적 인간성이다. 따라서 인간성의 종교는 선별된 특정 개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로부터 유래되어 모든 자들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종교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촛불집회는 뒤르케임이 언급한 인간성의 종교가 그 모습을 드러낸 현상이다. 그의 종교 정의에 의거해 본다면, 이 종교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종교이며, 그것은 성스러운 대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인지적으로 그리고 정서/감정적으로 연대시켜 하나의

29) Dew, 앞의 글, 105.

도덕공동체를 출현시키며 그 추종자들을 통합한다. 이 통합된 힘들은 때로 사회를 유지시키기도 하고 때로는-신기능주의가 지적하였듯이-사회를 변혁시키기도 한다. 뒤르케임의 예견대로 이러한 종교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발흥할 수 있다. 한편으로 개인주의, 사사화,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터넷, SNS 등이 계속 보편화되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같이 개인의 생명과 권익에 관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촛불집회와 같은 집합 행위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원인으로 생각했던 분업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IV. 인간성의 종교에 대한 평가 및 기독교적 함의

뒤르케임은 인간성의 종교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발전이 더욱 진척될수록 분업이 증가할 것이고 분업의 증가는 통합의 욕구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자신의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뒤르케임이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그가 기능주의적 시각을 토대로 하여 사회를 조망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회는 통합을 필요로 하고 각 사회의 내부 구조들은 이 통합을 위해 순기능적 역할을 도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분업은 통합을 더욱 갈구하게 하고 따라서 이 욕구를 인간성의 종교가 일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인간성의 종교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성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불변하게 지켜지는 사사롭지 않은 유일한 이념이며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연 인간성이 위에서 언급한대로 불변하고도 유일한 이념과 감정인가

하는 문제를 차치하고도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불변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통합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다소간 억지가 있어 보인다. 통합의 토대 조건이 반드시 불변하고 유일해야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그렇다 하여도 통합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통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닐 수 있다.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능주의자들에게 한정된 입장이며, 단지 통합과 발전을 중시하는 근대적 사고에 함몰된 사유일 수 있다. 루이스 코저(Lewis Coser)와 같은 갈등주의자에게 통합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목표가 아니다.³⁰⁾ 많은 후기구조주의자들은 통합에 대한 열망이 전근대적인 그리고 근대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단언한다. 전근대주의자들은 신의 이름으로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었고, 근대주의자들은 신에 근거한 이러한 통합시도를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정신, 이념, 이데올로기, 과학지식에 근거해 다시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³¹⁾ 오히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불일치, 분열 등을 사회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대안이나 필요한 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³²⁾ 이들에 따르면 통합은 유토피적이고 환상이고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분업의 활성화에 따른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인간성의 종교의 확산을 설명하려는 뒤르케임의 의도에는 시대착오적인 오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존엄성이 세상 변화 속에 불변하는, 또한 개인 속에서 발견되는 사사롭지 않은 유일한 이념이고 감정이라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 존엄성은 세상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침해당하거나 간과되었으

30) Lewis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박재환 옮김, 『갈등의 사회적 기능』 (서울: 한길사, 1980)을 참조하라.

31) Yannis Stavrakakis, *Lacan and the Political*, 이병주 옮김 『라캉과 정치』 (서울: 은행나무, 2006), 218-220.

32) 위의 글, 218-220.

며 지금도 그러하다. 또한 그것이 개인 속에서 발견되는 사사롭지 않은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뒤르케임이 사회학자이기에 관련된 예를 든다면 개인의 사회성이 존엄성보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보다 변하지 않는 그리고 사사롭지 않은 이념이며, 또한 거의 모든 사람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혼자 혹은 외톨이 보다는 함께 모여 살고 싶어 한다. 이는 시대와 장소와 상황을 초월하여 개인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종교계에서 또 다른 예를 찾는다면 성스러움에 대한 경외 사상을 들 수 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사실은 뒤르케임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 인류학자나 종교학자들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존엄성이 불변하고 유일한 토대라 보고 그에 근거해 현대사회에서 인간성의 종교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뒤르케임의 주장은 재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분업과 존엄성을 고찰하면서 인간성의 종교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견한 뒤르케임의 관점은 또 다른 방식으로 비판될 수 있다. 뒤르케임의 주장대로 인간의 존엄성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찾아지는 이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러나 이 존엄성이 더욱 숭상되는 이유는 그것의 유일성 또는 통합 필요성의 충족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근대의 시작부터 계속된 인간 중심적 사고의 확장 때문이다. 중세의 신 중심적 사고가 인간 중심적 사고로 치환되면서 신의 존엄성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주창되고 전파된 결과 인간성의 종교는 더욱 강화되고 확산된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도 역시 인간은 자신을 자신과 우주의 중심에 놓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다. 인간성의 종교의 미래가 낙관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성의 종교의 기독교적 함의를 논의할 수 있다. 인간성의 종교는 기독교 신앙과 상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단지 인간의 존엄성만을 주장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 건강, 행복, 주권, 미래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뒤르케임도 주장하였듯이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도 개인주의도 기독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³³⁾ 문제는 인간성의 종교가 인간성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신적 대상'의 위치까지 끌어올린다든지 그것에 '거룩성' '성스러움'과 같은 종교성을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뒤르케임은 인간성의 종교가 '사람이 예배자이자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종교' 혹은 '사람이 신자이자 동시에 신(both believer and God)이 되는' 종교라고 지적하면서 '믿음의 대상이 개인의 본성에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³⁴⁾ 인간성의 종교가 이렇게까지 될 때, 이 종교가 사회의 여타 제도와는 잘 조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의 본질과는 대척점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의 본질과 상이한 이런 요소들이 현대 사회 내에 넓게 자리 잡고 있거나 심지어 교회와 교인의 의식 안에서도 발견된다면 이는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이 인간성의 종교는 인간성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인간성과 인간의 권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다 더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종교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성의 종교는 기독교와 기독교도들에게 위기이며 도전일 수 있다.

33) 서구 개인주의의 출현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6을 참조하라.

34) Rosati, 앞의 글, 243에서 재인용

인간의 존엄성이 단순히 부각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숭배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인간성의 종교의 확장은 기독교와 대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대립 상황에 서서 기독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의 모습과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피터 버거(Peter L. Berger)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대치 속에서 기독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이다. 곧 대항(confrontation), 오염(contamination), 타협(compromise)의 세 갈래 길인데,³⁵⁾ 어느 길을 결정하느냐 따라 교회는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V. 나가는 말

쇠고기 촛불집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뒤르케임적 의미의 종교성을 띄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지적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들과 관련된 가치와 신념과 이상이었다. 이것을 위협, 무시한 개인이나 세력은 촛불집회에 의해 악하고 속적인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조롱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촛불집회가 정점을 향해 치달을 때 권력, 재계, 보수 언론 등은 거의 무력한 상태로 촛불집회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촛불집회는 다시 한 번 인간의 존엄성을 한층 ‘승화’시켰고 그것의 고귀성을 참가자들에게 강력하게 재확인 시켜주었다. 비록 쇠고기 촛불집회는 얼마 후 일단락되었지만 그 때의 느낌과 인식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지적대로 집합기억의 상태로 개인들에게 남아있게 된다.³⁶⁾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35) 이 세 가지 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eter L. Berger, *Heretical Imperative: Contemporary Possibilities of Religious Affirmation*, 『이단의 시대』 서광선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이 철, 『사회 안에 교회 교회 안에 사회』(서울: 백의, 2006) 1장을 참조하라.

36) Smith, 앞의 글, 136.

새로운 유사 사건들을 맞아 재표현, 재인식되면서 계속 강화될 것이다.

뒤르케임의 예상대로 인간성의 종교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욱 강력하게 현대 사회를 통해 자리 잡고 전파될 것이다. 오늘날처럼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확산된다면 인간성의 종교의 전파 범위와 강도 역시 날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종교는 기독교와 함께 갈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계점은 인간성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승격시키느냐에 의해 구분될 것이다. 인간성과 신성의 관계 설정 문제가 이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위치를 결정하는 핵심 결정 요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오경환. 『종교사회학: 개정판』. 서울: 서광사, 1990.
- 이철. 「송례문 전소사건의 사회통합적 힘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고찰」. 『신학사상』 144집. 2009, 봄.
- 이철.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종교의 역할에 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집. 2009. 7.
- Bellah, Robert. 박영신 옮김. 『사회변동의 상징구조』. 서울: 삼영사, 1981.
- Berger, Peter L.. 서광선 옮김. 『이단의 시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 Coser, Lewis A.. 박재환 옮김. 『갈등의 사회적 기능』 서울: 한길사, 1980.
- Douglas, Mary. 유제분, 이훈상 옮김. 『순수와 위험』 서울: 현대미학사, 2005.
- Durkheim Emile. 노치준, 민혜숙 옮김.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 Smith, Phillip. 한국문화사회학회 옮김.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 서울: 이학사, 2008.
- Stavarakakis, Yannis. 『라캉과 정치』 이병주 옮김. 서울: 은행나무, 2006.
- Weber, Max. 박성수 옮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2006.
- Berger, Peter L.. *A Far Glory: The Quest for Faith in an Age of Credulity*. New York: Anchor Book, 1992.
- Chernilo, Daniel. A Quest for Universalism: Re-assessing the Nature of Classical Social Theory's Cosmopolitan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0권. 2007.
- Dew, Kevin. Public Health and the Cult of Humanity: A Neglected Durkheimian Concept.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29권 1호. 2007.
- Elliott, Michael A., Human Rights and the Triumph of the Individuals in World Culture. *Cultural Sociology*. 1권 3호. 2007.
- Misztal, Barbara A.. Durkheim on Collective Memory.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3권 2호. 2003.
- Rosati, Massimo. Inhabiting No-Man' Land: Durkheim and Modernity.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8권 2호, 2008.

Segal, Robert A., The Place of Religion in Modernity, *History of Human Sciences* 17권 4호, 2004.

논문투고일: 2013. 10. 31.

심사개시일: 2013. 11. 13.

게재확정일: 2013. 12. 13.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에밀 뒤르케임의 ‘인간성의 종교’ 개념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회고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성의 종교’를 찾아보려는 연구이다. 뒤르케임에 따르면 이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성(인간의 존엄성, 권리, 평등, 주권 등)을 숭배의 중심에 둔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의 분업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이 종교가 더욱 발흥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는 뒤르케임의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인간성의 종교로 볼 수 있다. 사람의 생명, 건강, 권리, 주권, 가정, 행복 등이 ‘성스러운’ 중심 가치로 여겨지면서 이 가치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회합하여 ‘도덕’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뒤르케임의 종교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종교가 형성된 것이고, 본 연구의 주제로 살펴보면 인간성의 종교가 발흥한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종교현상을 살펴보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 관심 중 하나이다. 기독교 역시 인간성(humanity)을 중시한다. 그러나 신성(divinity)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성의 종교는 기독교와 기독교도들에게 위기이면서 도전이 된다.

주제어: 촛불집회, 인간성의 종교, 에밀 뒤르케임, 시민운동,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